

# 田禹治傳의 現實抵抗과 그 한계

鄭 相 珍\*

## 目 次

- |                   |                  |
|-------------------|------------------|
| I. 序 論            | IV. 現實認識과 抵抗의 限界 |
| II. 人物의 時代·社會의 性格 | V. 結 論           |
| III. 抵抗의 樣相과 그 意味 |                  |

## I. 序 論

田禹治傳은 朝鮮朝小說 중에서 遁甲모티브를 주축으로 한 道術的 要素들을 가장 많이 수용한 작품으로, 주인공 田禹治는 역사적 인물이지만 거기에 갖가지 道術的 說話들을 附會시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그런데, 朝鮮朝小說들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田禹治傳 역시 異本에 따라 그 구성 및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작품의 소설사적 위치나 하위분류 등도 연구자들이 어떤 Text를 선정하였는냐에 따라 달리 開陳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田禹治傳의 異本은 크게 木版本과 活字本으로 대별된다. 兩異本들을 대비 고찰한 先學들의 견해에 따르면 「田雲治傳」이란 題名の 목판본은 뚜렷한 作意도 없이 주인공의 野談 및 逸話들을 유형이 비슷한 설화와 혼합하고 다시 수정을 가해서 누군가가 기록한 것인 반면, 「田禹治傳」이란 題名の 活字本은 목판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적으로 虛

\*釜山外國語大 國文科 教授

- 1) 金台俊의 朝鮮小說史(學雲社, 1939) pp. 87~89에서 언급된 이후, 타당한 立論으로 수용되고 있다.
- 2) 異本간의 대비적 고찰은 林哲鎬, 田禹治傳研究 I. 연세언문학 9. 10합집(1977), 田禹治傳研究 II. 연세언문학 11집(1978), 尹在根, 田禹治傳說과 田禹治傳(고려대학교 국문과, 1980) 등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構化한 作爲의 所産으로 보고 있다.<sup>3)</sup> 따라서 前者가 ‘說話的’이라면, 後者は ‘小說的’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소설적인 것’과 ‘설화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은 내용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작품에 內在하는 작가의 社會意識 有無와도 관련될뿐더러, 작품의 소설적 성격이나 소설사적 위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sup>4)</sup>

본고의 중심 과제는 田禹治傳의 社會性研究에 있다. 소설이 어떤 형태로든지 생산된 당시의 時代·社會相을 반영한다고 볼 때, 보다 더 ‘小說的’인 내용의 Text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活字本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 遁甲術을 이용하여 현실적 모순을 剔抉하려는 田禹治라는 人物의 性格 規定

둘째, 작품 속에 具現된 抵抗의 樣相과 그 意味 究明

셋째, 저항의 과정에서 나타난 작가의 現實認識과 그 限界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討究하여 보고자 한다.

## II. 人物의 時代·社會的 性格<sup>5)</sup>

주인공인 田禹治가 實在人物이었다는 점은 각종 文獻說話集에 散在하는 그에 관한 기록으로 미루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家系, 生沒年代, 活動舞台 등, 文獻說話集에 기록된 내용들을 一覽한 결과,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 여러 가지로 市井에 流布되고 있는 異人行蹟을 定着者의 作爲에 의하여 文書化한 것이며 동시에 初期의 문헌 내

3) 林哲鎬, 앞의 논문 I. p. 281 참조. 본 연구는 작품의 사회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각 異本간의 대비 및 그 특색은 先學들에 의해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고 본고에서는 論外로 한다.

4) 木版本을 Text로 하였을 경우, 연구가들에 따라서 田禹治傳은 小說作品으로서는 貶視될 수 있고 또한 貶視되기도 하였다.

5) 人物에 대한 學術的 명칭에 있어서 몇 가지 상이한 개념이 있다. 즉 人物의 性格的 役割을 중시하여 그 역할에 따라 性格이라고 지칭하는 경우, 즉 人物=性格의 경우와, 人物이 지닌 독특한 특색의 한 면을 가리키는 경우가 그것인데(朴東奎, 現代韓國小說의 性格研究, (文學世界社, 1981. p. 25) 본고에서 말하는 성격은 後者に 해당된다.

용들이 朝鮮朝末期까지 별다른 屈折 없이 轉載되어 온 것으로 상정된다.<sup>6)</sup>

文獻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田禹治의 인물됨을 類推하여 보면, 微賤한 身分이었지만 재능은 상당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즉 士大夫 관료층과도 어느 정도 交遊가 있었고 詩才도 뛰어난 점으로 보아 한 미한 그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재주는 타고난 것 같다. 그러나 身分의 제약 때문에 立身의 길이 막히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 울분을 사회적으로 발산하면서 살았던 모양이며, 여기에 道仙思想이 결부되어 異人化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그가 생존했던 시기에는 仙風이 風靡하였다는 사실을 看過할 수 없다.

前述한 것처럼 田禹治에 관한 기록이 實錄에 등재된 것도 아니고, 더우기 文獻에 따른 내용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生沒年代는 알

6) 田禹治에 관한 文獻상의 기록들을 내용의 寡·多에 관계없이 그 書名만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中宗·宣祖간에 생존한 李樂의 松窩雜說에서부터 1930년경에 나온 大東奇聞까지의 내용을 보면, 異人說話의인 요소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初期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林哲鎭, 尹在根의 앞 논문 참조.

- ① 李樂의 松窩雜說
- ② 李德河의 竹窓窓話
- ③ 柳夢仁의 於干野談
- ④ 李晔光의 芝峰類說
- ⑤ 車天路의 五山說林
- ⑥ 許窩의 性叟詩話
- ⑦ 洪萬宗의 海東異蹟
- ⑧ 尹衡聖의 朝野僉載
- ⑨ 鄭載崙의 公私見聞錄
- ⑩ 李德懋의 寒竹堂涉筆
- ⑪ 未詳의 朝野輯要
- ⑫ 鄭昌順의 松都誌
- ⑬ 未詳의 芝陽謄錄
- ⑭ 劉在倦의 里鄉見聞錄
- ⑮ 李源命의 東野叢輯
- ⑯ 金澤榮의 崧陽耆舊傳
- ⑰ 李能和의 朝鮮道教史
- ⑱ 未詳의 大東奇聞

7) ·田禹治海西人也, 不學而能之 詩語灑落……縣監李佺與禹治相知(松窩雜說)  
·田禹治松京術士也 於書無不強記……時朴光祐載寧郡守 愛其博識 群書疑治(於干野談)

수 없다. 그러나 松窩雜說上的 嘉靖年間은<sup>8)</sup> 中宗 17年에서 明宗 20年間이고, 於干野談上的 朴光祐는<sup>9)</sup> 연산군 1年에서 明宗 元年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며, 海東異蹟上的 企齊 申光漢은<sup>10)</sup> 成宗 15年에서 明宗 10년까지 생존하였던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田禹治의 生存時期도 明宗朝를 전후한 시기로 추단된다.

洪萬宗의 旬五志에 40여명의 道仙의 人物이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朝鮮朝人이 28명이며, 그 중에서도 中宗時부터 宣祖 때까지 생존했던 인물이 17명이나 된다.<sup>11)</sup>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明·宣祖 때가 道仙思想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仙風이 風靡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社會相과도 결코 無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朝鮮王朝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士大夫階層 중심의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유교윤리를 앞세워 출발하였다. 그런데 사대부층은 執權勢力인 勳旧派와 在野勢力인 士林派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초기에는 相互間의 갈등 없이 王權을 견제하면서 순탄하게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燕山君 때에 와서 왕과 훈구세력이 결탁함으로써 사림파의 인물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결과를 초래한 戊午士禍, 그 뒤를 이어 폭군화된 연산군에 의해 훈구세력의 기능마저 분쇄하는 일종의 정치적 숙청이라고도 볼 수 있는 甲子士禍, 얼마 안가서 中宗 때에는 趙光祖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 세력이 훈구 세력에 의해 慘敗당하는 乙卯士禍 등 각종 士禍가 繼起하였다. 이렇게 거듭된 사화는 결국 黨爭의 싹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일부 선비들은 官路에서 물러나 山林에 隱居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2)</sup>

그런데, 이런 政治的 患亂의 渦中에 처한 선비들은 明哲保身에 뜻을 두고 山林에 묻혀 學問研究에 몰두하면서 再起의 기회를 노리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당시에 異端視되었던 老·佛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8) 嘉靖年間厲氣熾發 估之奴與隣居十餘人 臥病方劇…….

9) 각주 7) 참조

10) 田禹治方技之士 且能文 嘗往申企齊光漢弟 宋麟壽亦至…….

11) 智異山人, 徐敬德 鄭礪, 鄭礎, 鄭堦, 田禹治 尹君平 漢學仙翁 南師古 朴枝莖 李之函 寒溪老僧 柳享進 張漢雄 南海仙人 蔣生 郭再佑 등이다.

12) 姜萬吉, 16C 變化, 韓國社會史論選, 全北史學會 韓國史研究室編(서울, 학문사, 1982), p. 321 참조.

다. 다시 말하면, 언제 환란이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政勢에서 內面的 安息을 구하고 保命할 수 있는 사상의 바탕을 모색하는 추세는 점차 老·佛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老莊의 處世哲學이나 道仙의 養生術은 隱者의 個人的 修養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진다.<sup>13)</sup> 뿐만 아니라 일부 선비들의 道仙에 대한 관심은 일반 민중에까지 확산되어 갖가지 異人說話들은 創出, 口碑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便乘한 人物 중의 한 사람이 田禹治이며, 동시에 說話의 人物로서 文書化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우기 文獻說話의 担當層은 身分面에서는 支配集團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치 일선에서 疏外당한 政治的 民衆들이기 때문에 漢文化에 대한 指向性은 강하면서도 爲政者들에 대해서는 매우 批判的 자세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환란 속에 사는 억압받는 민중들에 의해서 口碑擴散된 異人들의 行蹟이 비록 평민층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文字로 정착시키는데 있어 인색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道仙思想 자체가 인간의 超越的 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한 呪術 宗教的 性格을 띤 自然宗教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老莊의 無爲自然思想을 根幹으로 하고 있는 道家思想, 그리고 戰國時代의 정치적 혼란과 爲政者들의 폭정 때문에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 柔弱한 知識人들에 의해서 형성된 神仙思想 등에 갖가지 民間信仰의 要素까지 겹쳐져 형성된 道仙思想은 宗教哲學的인 범위를 넘어서서 人間能力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超越的 要素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朝鮮朝의 士大夫들로부터 惑世誣民한 思想이라고 하여 叱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환경에 환멸을 가진 일부 양반계층이 道仙思想에 관심을 두었다고 해서 완전히 心醉된 것도 아니었고 더우기 惑世誣民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精神的 支柱는 어디까지나 性理學이다. 徐敬德이나 許筠은 유학자이고 성리학자이지 道仙人은 아니며, 徐敬德의 行蹟 중에 異人의 幻術의 說話도 전해지고 있으나 그는 儒教倫理의 守護者이지 破壞者는 결코 아니다.

13) 崔三童, 韓國初期小說의 道仙思想研究(營雪出版社 1982) p. 166 참조.

道仙의 能力을 지닌 異人이 출현하여 현실의 桎梏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는 쪽은 민중이다. 그러므로 異人으로 脚色된 인물이 양반층에 속하든 상민층에 속하든 그들을 異人의 人物로 說話化한 것은 어디까지나 민중이라고 생각된다. 민중에 의해서 創出되고 口碑된 異人의 行적이 批判的 兩班層에 의해 文書化된 것이고, 田禹治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다. 결국 田禹治을 두고 文獻上의 記錄에 賤한 선비니, 術士니, 羽士니, 妖鬼病退治者니 하는 것을 보면 그의 身分의 微賤함을 알 수 있고, 민중 속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역사적 인물인 田禹治는 타고난 재질을 身分的 制約 때문에 능력껏 발휘할 수 없게 되자 당시에 風靡했던 仙風에 便乘해서 뜻을 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죽은 인물로 상정되며, 전우치전은 이런 역사적 인물을 虛構化한 것이다.

그러면 實存人物인 田禹治가 虛構 속에는 어떻게 造形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선 身分上에서, 木版本에는 代代公侯의 子孫으로 그의 父親代에 와서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山林處士의 晩得子로 되어 있고<sup>14)</sup> 活字本에는 그저 선비로 되어 있다.<sup>15)</sup> 따라서 虛構 속의 田禹治는 兩班身分이며, 實存人物의 신분과는 相反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實存과 虛構 사이의 身分上의 置換인데, 이것은 現實的 對決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形式的 裝置라고 여겨진다.

田禹治의 적대 세력은 支配官僚層이다. 적대 세력이 지배관료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도 통한다. 즉 田禹治는 현실적 지배 체제를 부인하고 特權에서 소외된 상태에서 현실적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배 권력과 대결하는 인물이

14) 고려말에남서부자에일위명시잇노니성은던이오명은숙이오별호는문화선심이라티  
'티공후자손으로숙의게이르러청운에뜻이업어...(金東旭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5  
p. 189.)

15) 조선초에송경승인문안호선비잇스나성은던이오일홍은우치라. (전우치전 권지단(신  
문관 출간본), 조동일편, 전우치전(시인사 1983) p. 12)

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그런데 그 대결의 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이 身分이다.

論議의 과정에서 구체화되겠지만 田禹治는 적대세력인 지배 관료층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志向意志를 어느 정도 구현한다. 그런데 그가 微賤한 身分이었다면 그 대결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며, 설령 대결의 場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과는 自明하다. 說話 속의 田禹治는 朝廷에서 惑世誣民하였다는 罪로 처형하려 하자 스스로 자결하였는데<sup>17)</sup> 이것은 自我(민중)와 世界(권력층)와의 대결에서 자아의 무참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중적 영웅전설의 비극적 유형의 典型이다.<sup>18)</sup> 결국 田禹治의 身分의 換置는 傳說的 人物의 前轍를 밟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도적 장치이고 作家力의 발휘라고 볼 수 있다.

兩班身分으로 僞裝하여 허구 속에 등장한 田禹治는 封建王朝의 階級的 秩序 밑에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基層民을 대변하는 英雄性을 발휘한다.

“이새남방히변여러고올이어러해바다도 죽의노락을넘은 늪아지에업친디덤  
쳐우서운흉년을맞나니그곳 백성의참혹한형상은이로붓으로그리지못 할지라그  
러나조당에버슬호는이들은권세를 닷호기에만눈이 붉고가슴이탈뿐이오 백성의  
절고는 모르는듯키브러두니 뜻있는이의 팔을뚝내여통분 혼이닐을기업더니우치  
소한참다못 하여그옥허똥을결단하고집을 버리며세간헛치고던하로서집을삼고  
백성으로서몸을삼으려 하더라.”<sup>19)</sup>

漁村에 海賊이 跋扈한 데다가 흉년마저 들어 백성의 참상은 形言키

- 16) 朴逸勇은 英雄小說을 크게 現實的 權力體制를 인정하는 系列과 그렇지 않은 계열로 나누고, 田禹治傳과 洪吉童傳을 후자에 두고 있다. 英雄小說類型變異의 社會的 意味, 한국고전문학연구회 編著(文學과 知性社, 1983) p. 189.
- 17) 蓋朝廷深惡禹治妖幻 期必捕致之死 知光祐疑遇爲私借使勿失也 然光祐不忍放心 欲便遁逸密言于禹治 禹治曰我當有以處之 是夜雉頸而死(於干野談)
- 18) 民衆의 英雄의 悲劇的 運命은 장수설화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현길연 저 제주도 장수설화 (弘盛社, 1981) 참조.
- 19) 活字本(신문판본) 趙東一 編, 앞의 책, p. 12.

어려운데에도 爲政者들은 세력 다투에만 血眼이 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백성을 몸으로 삼으려고 분연히 일어났다고 했다. 이것은 田禹治가 기층민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고난 구제에 志向價値를 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田禹治는 결코 個人的인 인물이 아닌 社會的인 인물이고 그의 행위 또한 社會的인 意味를 지닌다. 더우기 小說이라는 것이 自我와 世界의 대립,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자아는 순수한 고립된 개인이 아니며 세계 또한 그 자체의 갈등, 모순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總體的으로 反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田禹治傳의 社會性은 그 當爲性이 인정된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이 작품은 個人的인 힘, 固定完結된 힘, 非現實的인 힘을 가지고 既定秩序를 그대로 支持 擁護하면서 단지 거기에 순수히 따르지 않는 邪惡한 人間의 弱點을 訓戒的인 意圖에서 지적하였고, 결과적으로 兩班貴族들이 가진 道德的인 觀念을 반영한 것이라는<sup>20)</sup> 견해도 있다. 그러나 前記의 인용에서처럼, 그의 행위는 지배 계층에 대한 응징적 결단에서 출발하였고, 한때는 體制內의 일원으로 관여한 바도 있으나 도리어 逆謀의 모함을 받아 極刑의 운명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 응징의 대상이 되는 邪惡한 인간이란 다름 아닌 지배 관료층과 그 주변 인물들이며 그들이 민중의 궁핍에 책임이 있다는 田禹治의 인식은, 그가 당시의 基層民의 現實과 念願을 대변하는 인물이지 결코 兩班官僚層이 지닌 道德觀念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님을 입증한다.

따라서 그의 놀라운 능력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일 수 없고 오히려 기층민의 의식에서 創出된 사회적 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田禹治는 기층민의 삶 속에서 느끼는 현실적 모순을 제거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그러한 英雄이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꿈의 대상이라는 朴逸勇의 지적은<sup>21)</sup> 상당히 설득적이다.

20) 金一烈, 洪吉童傳과 田禹治傳의 比較考察 語文學 30 (韓國語文學會 1974) p. 67.

21) 英雄小說類型變異의 社會的인 意味, 近代文學의 形成過程(앞의 책), p. 202.

## III. 抵抗의 樣相과 그 意味

나라의 뿌리인 백성들의 존재는 외면한 채 私慾에만 집착한 위정자와 그 주변 인물들을 應懲하고 懲治하기 위해 현실에 뛰어든 田禹治는 그 힘을 遁甲術에 의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非現實的, 超越的 道術力을 이용하여 그의 志向價値를 具現한다.

그의 道術 습득 경위를 보면, 活字本에서는 높은 스승을 만나 神仙의 道를 배웠다고 하였고<sup>22)</sup> 木版本에서는 여자로 둔갑한 여우를 만나 狐精을 얻고 여우굴에 들어가 天書 세 권을 얻어 공부한 연후에 터득하게 되었다고 했다.<sup>23)</sup> 그러나 道術自體가 인간의 幻想的 產物이며 시련 극복이나 욕구 실현의 방편 내지 수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전우치의 도술 습득의 계기가 어디에 있는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24)</sup>

그러면 道術의 人物인 田禹治가 具現한 抵抗의 實相과 그 意味를 살펴보기로 하자. 作品의 구성이 주인공이 직면한 개개의 사건들을 단독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사건들을 竝立的으로 결구하였기 때문에 항목 별로 나누어 討究하여 보기로 한다.

## 가) 黃金詐取와 貧民救濟

天下로써 집을 삼고 百姓으로써 몸을 삼으려고 현실에 뛰어든 후 첫 번째 행위가 황금 사취와 빈민 구제이다.

仙官으로 가장한 田禹治는 玉帝의 命이라고 하면서 황금 대들보를 요

- 
- 22) 일죽늬흔스승을조차신선의도물비호터본대진질이표일하고경야정성이지극함으로  
마춤내오포훈리치물통호고신귀호치조를엇엇으나소래를숨기고자최물곰초아지냄으  
로……(治字本 趙東一 편 앞의 책) p. 12.
- 23) … 경을못이거입을서로다하고하를니허구술을구울너운치입의넛커늘은치바다입의너  
코오리도록주지아니호니…중략…구미회견의지못호여시너드러왈네빨리가성격합속  
의잇는세권칙을가져오라호거늘요괴급허가져왔는지라운차바다본즉면세라(木版本,  
金東旭편(앞의 책) pp. 816~817)
- 24) 木版本의 내용이 因果의 關係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活字本보다 설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朝鮮朝小說에 등장하는 道術의 인물들의 경우와 대비하여 보면(英雄小說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도술력을 지닌 인물이나 그 습득 경위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활자본의 내용이 도리어 소설적이다.

구하자 다급하게 된 朝廷은 王室을 비롯한 公卿大夫들의 금은 물론 아  
 녀자의 비녀에 올린 금까지 벗겨 바친다. 그것을 받은 전우치는 십만  
 民戶를 救濟한 후 榜을 붙여

이번곡식을난흙은나를 칭송하는 문헌이나는 맛당치아니 할지라대개나라는 뵈  
 성을뿌리삼고부자는 빈민의 문들어좁이어 놀이제너희들이랑순환익성과충실한  
 일군으로이러듯참혹한디경에니르듯것만은벼슬한이가길을트지아니하고김열한  
 이가힘을내고자아니흙이러턴리에어그러져신인이공분하는바이기르내하늘을  
 대신하여이러겨러한방법으로이러더러한맛습이니……중략……잠시님의게맛  
 것던것이돌아온줄로알고나의힘을넘는줄은아지말지이다. ……하략<sup>25)</sup>

하며 這問의 사정을 일러 주고 있다. 나라는 백성을 뿌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란 뜻이다. 주인 되는 백성은 참혹한  
 생활고에 허덕이는데 爲政者들은 길을 트지 아니하니 분함을 참지 못하  
 여 하늘의 뜻을 대신하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곡식  
 은 받을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掛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가 仙官을 假裝하여 玉帝의 命을 詐稱한 것은 玉帝의 命이 바로 天  
 命이란 점에서 최선의 수단적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하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欲求充足에만  
 血眼이 된 爲政者들의 작태는 天理에 어긋난 것이고, 그러므로 이들을 應  
 懲하고 백성을 救恤하는 유일한 수단은 옥제의 명을 詐稱할 수 밖에 없  
 었다. 비록 朝鮮王朝가 儒敎社會이고 儒敎倫理에서의 王權은 절대적이  
 지만 天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玉帝의 命에 순  
 종치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나라의 뿌리가 백성이라는 것은 專制君主社會라 할지라도 不變  
 의 眞理이다. 그러나 封建의 階級社會의 實相은 정반대의 길을 갔기 때  
 문에 문제는 심각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 그는 반항의 旗幟를 들었  
 고, 그 처음의 행동이 백성 구제인 것이다. 따라서 田禹治의 現實抵抗  
 은 그 출발부터 社會의 性格을 띤 것이었고, 그것도 단순한 爲民行脚의  
 차원을 넘어서 支配倫理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25) 活字本(신문관본), 趙東一編(앞의 책), p. 16.

## 나) 分身術과 脫走

황금 대들보 사건이 田禹治의 소행인 줄안 朝廷은 逮捕令을 내린다. 그러나 힘센 자들이 대단하다고 행세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無力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수할 것을 결심한다. 병속에 들어가 國王 앞에 선 田禹治는 병조각으로 分身하면서

신이던 우치어니와원컨대군신간신의죄를 다스릴정신으로빅성이나더편안케함  
이을홀가학노이다<sup>26)</sup>

—喝하고 도주한다. 국왕의 失政을 面前에서 공박함은 물론 자신의 術力을 지배층에게 보임으로 지배층의 인물들로 하여금 힘의 限界를 실감케 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術策을 쓸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은 자수하면 벼슬을 주겠다는 것이다.

## 다) 不當한 獄事處理

살인을 저지르고도 權力과 결탁하여 그 匿名을 무고한 백성에게 씌움으로써 死刑을 당하게 된 사건을 田禹治가 그 實相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즉 「왕가」를 죽인 「조가」라는 자는 형조판서 양문덕과 交遊가 깊은 것을 연유로 殺人匿名을 老翁의 아들이 쓰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田禹治가 죽은 「왕가」로 둔갑하여 살인 누명을 벗겨 준다는 내용이다. 권력의 庇護 내지 野合으로 억울한 獄事事件이 당시대에 非一非再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朝鮮朝 社會가 안고 있는 構造的 矛盾 중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부당한 옥사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것은 한 개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社會正義의 實現이기도 한 것이다.

## 라) 書生과 妓生의 懲治

書生들이 妓生들과 어울려 노는 宴會에 참석한 전우치가 그들의 傲慢不遜한 행위를 보고 道術力을 발휘하여 그들의 下門을 除去한다는 내용

26) 活字本(신문관본), 趙東一編(앞의 책), p. 22.

이다.

書生들은 勢道家의 子弟들로 아무런 生産的 수단도 없으면서 父母의 덕으로 환락적인 생활을 하는 인물들인데, 이러한 그들의 작태는 기층민들의 怨聲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下門이 없어지는 수모를 당함으로써 타락한 書生들이 자신이 意識構造를 개혁하는 自我覺醒의 계기가 되었고 전우치의 행위 또한 개인적인 원한의 단순한 해소를 넘어 사회적 것이 된다.

#### 마) 官職生活과 盜賊討伐

田禹治는 宣傳官의 벼슬을 한다. 그러나 그의 관직 생활이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制度圈內의 인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관직이 주어진 것은 朝廷의 힘으로 그를 除去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벼슬을 이용하여 제도권내에 두었다가 기회가 나면 除去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조정의 의도를 看破한 田禹治는 벼슬을 준다니 일단 응해 보자는 생각이었지 벼슬 그 자체를 탐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27)</sup>

만약 전우치가 벼슬에 뜻이 있었다면 그의 才能으로 보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며 더우기 洪吉童처럼 身分의 制約을 받지 않는 兩班의 後裔이다. 그러나 그는 天下로서 짐을 삼고 백성으로 몸을 삼아 백성의 極苦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몸을 던졌기 때문에 벼슬에는 처음부터 뜻이 없었다. 이런 인물에게 武官職인 宣傳官, 그것도 궁중의 말이나 먹이는 司僕內乘이란 벼슬이 주어졌다 하여 그것에 만족하고 자기의 의지를 굽힐 위인은 아니다.

한편 田禹治가 制度圈內에서 행한 행위 중 대표적인 것이 도적들인 엄준의 무리를 討伐한 것이다. 즉 함경도 가단산에 蠢動한 도적들이 선량한 良民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괴롭히자 田禹治가 道術力으로 頭目인 엄준을 生捕하고 그의 부하들은 改過遷善시켜 돌려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그의 행위를 두고 國王에 대한 忠誠 내지 體制擁護論者라고

27) 조동일, 고전소설과 정치, 柳宗鎬 編, 文學과 政治(民音社 1980) p. 125 참조.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적 퇴치는 국왕에 대한 충성이나 체제 옹호의 차원을 넘어 백성 구제의 문제이다. 도적들은 義賊이 아니고 良民들의 생존을 괴롭히는 匪賊들이다. 비적들의 亂에도 朝廷은 束手無策이었고 그대로 放置하였을 때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양민이다.

따라서 그의 도적 토벌은 良民救濟에 있었으며, 비적들의 亂도 퇴치 못하는 지배층의 無能을 폭로하는 계기도 되었다.

#### 바) 逆賊陋名과 脫走

湖西 땅에 蠢動한 도적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누명을 쓰게 된 田馬治는 그림 속의 나귀를 타고 도주한다. 그의 逆賊陋名은 執權層의 계산된 행위였고 그로서도 予見한 일이다. 왜냐하면 兩者間에는 처음부터 和合이란 있을 수 없었을뿐더러 田馬治를 制度圈內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를 제거하려는 일종의 트릭이었기 때문이다.

田馬治는 국왕에게 紙筆을 부탁하여 그것으로 나귀를 그리고, 그 그림 속의 나귀를 타고 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왕은 그의 脫走를 도와 준 꼴이 되었다.

#### 사) 吏部尙書의 懲治

吏部尙書 왕연희는 집권층 인물 중에서 道德的으로 타락한 대표적인 존재이다. 뿐만아니라 전우치가 逆賊陋名을 쓰고 親鞫을 받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讒訴를 일삼던 자이다.

田馬治는 그를 懲治할 목적으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왕연희 행세를 하는가 하면, 왕연희가 歸家하자 眞假다툼을 벌이고, 그를 구미호로 변신시키는 등의 弄감술을 통하여 그의 惡行을 정치한다.

#### 아) 기타

現實抵抗이라는 側面과는 相衝되는 지극히 私的인 내용들이다. 즉 ①, 田馬治가 그린 簇字를 찢은 질투심 많은 吳生의 부인 민씨를 정치하는 것, ②, 思想病을 앓는 친구를 위해 守節寡婦를 毀節시키려다가 실패하

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친구를 구해 준 점, ③, 徐花譚의 동생 용담과 道術競合을 벌여 이겼으나, 서화담에게는 패배하고 화담과 같이 영주산에 들어가 仙道를 닦는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作品의 전체 구성으로 볼 때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②와 ③에 내포된, 즉 田禹治의 道術的 行爲에 대한 강림도령과 서화담의 立場을 밝힌 대목이다. 왜냐하면 田禹治의 행위에 대한 肯, 否定的 의미와 유관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소싱이눈이잇스나망울이업서선싱을몰라본히만스무석이오나고당에로피 제시되권세잡고감열잇는 재너무희성 올못살게굳기로부득이나라를속입이오조 당시를 晝절히려호흔병인을살니려홈이니원컨대선싱은죄를사하 시고선술을르 르쳐주소서<sup>28)</sup>

나) 그더닐오지아니히도내발서아나니국운이불힘여그더호호술이세상에 작란히니소당그더몰죽여후폐를업시하겠스나……중략……이저당시를다려다가 썰니데 집에두고병든양가에게는당시더신으로호사람이잇스니……<sup>29)</sup>

다) 네여러가지술법을가지고반드시을혼일을위하여힘히니기특히나사특호 혼모즘내정대홍이아니오지조는반드시웃길이잇나니오리이로써세상에든니면 필경파축혼 화를답을지라<sup>30)</sup>

가)는 守節寡婦인 鄭氏女를 毀節시키려다 자기보다 術力이 높은 강림도령에게 제지당한 후 田禹治가 자기의 立場을 밝힌 대목이며, 나)는 田禹治의 행위에 대한 강림도령의 입장이고, 다)는 徐花譚의 입장을 밝힌 대목이다. 결국 가), 나), 다)는 田禹治의 행위를 두고 各者의 見解를 피력한 셈이 된다. 그러면, 가)는 당사자의 말하기 때문에 且置하고, 客觀者의 위치에 있는 강림도령과 서화담의 말을 음미해 보자.

나)에서 국운이 불행하다는 것은 田禹治의 말대로 權勢잡고 가멸한 자가 너무 백성을 못살게 하는 피폐한 사회현실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妖術이 세상에 작란한다는 것은 田禹治의 道術行脚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강림도령이 상사병이 든 禹治의 친구를 위해 鄭氏 대신으로 다

28) 활자본(신문관본) 趙東一編(앞의 책) p. 78.

29) 활자본(신문관본) 趙東一編(앞의 책) p. 78.

30) 活字本(신문관본) 趙東一編(앞의 책) p. 86.

른 여인을 천거하였다는 것은 田禹治의 道術行爲를 그가 全面 否定하고 있지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田禹治의 사사로운 友情에서 비롯된 道術을 부정한 것이지 爲民行脚을 벌이면서 부린 道術力 전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도술이 正常的인 입장에서 행하여져야 그 正當性이 인정되고 사사로운 것일 때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통한다.<sup>31)</sup> 따라서 강림도령은 田禹治의 현실적 저항 의지의 具現을 위해 示顯된 도술은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時弊에 대한 저항적인 행위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 여러 가지 術法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道術力으로 백성을 구제한 田禹治의 행위를 두고 한 말이고, 邪惡함은 마침내 정대함이 아니라는 말은 道術이 사사로운 이익에 사용되었을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徐花譚도 田禹治의 爲民的 道術을 긍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道術으로써 세상에 다니면 필경 巨側한 禍를 입는다는 것은 道術力의 限界를 말한 것인데, 이것은 다음 章에서 詳論이 되겠지만 作家意識의 한계와도 결부된다.

#### IV. 現實認識과 抵抗의 限界

叙事文學은 일단 주인공의 志向하는 目標가 객관적으로 확립된 다음에, 狀況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주인공의 행위가 전개된다. 田禹治傳의 주인공인 田禹治도 基層民의 現實的 桎梏을 팽개친 채 權力慾에만 眩惑된 지배 계급에 대한 저항과 그것을 통한 백성 구제에 그 志向目標를 두고 현실에 뛰어난 인물이며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의 대상이 국왕을 頂點으로 한 지배 관료층과 그 주변 인물들로서 世界의 벽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現實的인 힘으로는 志向目

31) 강림도령의 다음과 같은 말에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네(우치)요술로나라를 속이니그 죄크다. 다만착훈일하는 방편으로삼음으로 무수함을 엇엇으나이제 흉악 혼심장으로결부를 晔絶코자훈니엇지명턴이브려 두시리오. 活字本(新文館本), 趙東一(앞의 책), p. 76.

標의 실현이 불가능했고, 그러므로 超越的인 힘을 바탕으로 時弊의 剔抉과 백성의 구제를 위해 고독한 항쟁을 전개한 것이다.

田禹治가 저항하는 대상이 人間社會 전반에 遍在하는 모든 人間的 不道德性이기 때문에 특정한 社會問題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sup>32)</sup> 不道德的 행위 자체가 집권층의 政治力 不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洪吉童傳처럼 庶孽集團의 身分的 制約이라는 특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배층의 疲弊와 거기에서 비롯된 기층민의 고난은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社會的 問題의 해결자로서 基層民의 대변자, 대행자로서 산속에서 나올 때의 田禹治의 결단과 의욕은 대단하였고, 동시에 問題的 人物이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인데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가 하면, 백성의 고충은 외면한 채 권력 다툼에만 급급하니 이것은 天理에 어긋난 짓이라고 공박하면서 天下로써 집을 삼고, 백성으로 몸을 삼으려고 작정했다. 詐取한 황금대들보를 팔아 貧民을 구제하면서, 財物은 백성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 일은 玉皇上帝가 시킨 것도 아니며 자기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意志는 군신간신의 죄를 다스릴 정신으로 백성이나 편안하게 하라고 하여 국왕에게 극단적인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우치의 意識構造로 볼 때 그의 진정한 敵對者는 國王이고, 逆謀를 꾀해 王政을 붕괴시킬 정도의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로 파악된다.

그런데 문제는 출발 당시의 굳은 決意에 비해 사건이 전개되어 갈수록 그 樣相이 弱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逆賊陋名을 쓰고 脫走한 후에도 별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한 것이 없고, 백성에게 유포되어야 할 삶의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時弊를 완전히 除去한 것도 아닌 글자 그대로 龍頭蛇尾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社會正義의 實現者로서 사회가 안고 있는 構造的 矛盾을 완전

32) 金一烈, 洪吉童傳과 田禹治傳의 比較研究 語文學 30, (앞의 책) p. 66.

제거하고 고통 속의 백성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田禹治가 그의 意志대로 행하지 못하고 有名無實하게 끝나버린 根因은 무엇일까? 이것은 封建王朝體制의 두터운 벽을 인식하고 있는 作家의 限界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朝鮮王朝의 統治構造가 中央集權의 官僚 체제라고 하지만 그 기반은 封建的身分社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身分의 編制 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새 왕조의 등장과 더불어 政治에 참여한 집단이 儒敎的 支配體制를 강화하고 그들 자신은 支配身分으로 좁혀 가는 동안에 현실적 평민과는 거리가 먼 신분으로서의 여러 가지 特權과 權勢를 누리고 또한 治人者로 군림하게 됨으로써 일반 백성들은 완전히 被治者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sup>33)</sup> 그래서 被治者의 위치에 놓인 常民들은 생산 수단으로서의 勞動力 기능 밖에 되지 못한, 즉 人格의 主體가 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육체로서 노동하는 자는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는<sup>34)</sup> 孟子의 말과 상통하는 것으로 常民은 일종의 物的 存在價値 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常民들은 人格體로서가 아니라 物的 存在價値로 賤視된 데다가 일부 양반층에 富의 偏重이 극심하여지자 民衆 또는 民衆을 등에 업는 일부 失勢兩班들에 의해서 각종 民亂이 繼起하였다. 순수한 常民들이 중심이 되어 발생한 林巨正의 亂, 失勢兩班들이 常民과의 유대 속에서 일으킨 鄭汝立의 亂 등 갖가지 民亂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봉건 왕조 말기까지 이어졌다.<sup>35)</sup> 그런데 이러한 각종 민란의 중심되는 기본적인 정신은 社會的 平等의 問題와 관련된 것이며, 그 자체가 常民들의 現實的 願望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많은 民亂들이 그 성격, 발생동기, 행동양상, 방법 등에 따른 원인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모두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中央集權의 王朝體制인 封建的 社會構造 아래에서의 民衆의 힘의 柔弱性과 限界性을 보여준 것으로 상정되는데, 趙東一의 다

33) 韓佑勳 朝鮮前期 政治社會의 性格, 韓國社會 思想論選(앞의 책) p. 312.

34)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 治人 勞力者 治於人(孟子 滕文公篇)

35) 鄭興鍾, 朝鮮後期社會變動史 研究 (서울 一潮閣, 1983), p. 8 참조

음과 같은 지적은 필자의 견해를 立證한다.

사대부가 백성을 지배하고 수탈하는데 맞서서 벌인 백성의 항거는 줄곧 계속되었다. 그런데 백성의 항거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는 했어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좀처럼 찾아 보기 어렵다. 나라의 공식 기록에서 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개인적인 저작에서도 항거하는 백성은 도적이라고 표현되기 일췌였고 상하관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사람이 짐승과 다름없이 되고 만다는 윤리적 전제에 대한 반론을 사대부가 스스로 마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sup>36)</sup>

결국 田禹治傳의 작가도 王權中心의 封建的 支配體制가 존속하는 한, 한 개인이나 집단의 힘으로는 社會改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王權을 하나의 聖域으로 인식하였던 儒敎的 王朝體制下에서는 비록 그것이 虛構物이라고 할지라도 體制 否定이나 挑戰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다만 執權層의 몇몇 人物들을 우롱하거나 응징 정도에서 만족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熟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37)</sup> 田禹治의 現實的 抵抗이 龍頭蛇尾로 끝나고만 根因은 이러한 作家意識의 限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 V. 結 論

朝鮮朝小說中 洪吉童傳과 더불어 封建王朝體制가 안고 있는 社會的 問題들을 제기한 作品인 田禹治傳을 一瞥하여 보았다. 冒頭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異本間의 對備的 考察이나 각 版本의 내용적 특징 등은 先學에 의해서 討究되었기 때문에 且置하고, 社會意識이 보다 많이 浮刻된 活字本을 Text로 하여 人物의 性格 및 抵抗의 行爲 등에 관심을 두고 살펴 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歷史的 人物인 田禹治는 多才多能한 常民層의 人物로 당시에 風靡하였던 仙風에 結부되어 異人化된 民衆의 英雄이다. 그러나 身分의

36) 조동일, 고전소설과 정치 柳宗鎬 編(앞의 책) p. 106.

37) 作家의 限界意識은 作品上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田禹治의 行爲에 대한 徐花譚의 입장표명이 그것이다. (각주 29 참조)

制約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하고 죽은 비극적 인물이며, 이것은 傳說的 英雄의 悲劇的 運命과 그 軌를 같이 한다.

둘째, 虛構 속에서 兩班身分으로 置換시킨 것은 現實的 對決을 위한 힘의 마련과 동시에 傳說的 人物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비극적 운명의 前轍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이것은 作家力의 발휘다.

셋째, 田禹治의 抵抗의 行爲는 良民救濟, 支配層의 非理 및 社會的 矛盾 剔抉 등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그는 社會的 · 問題的 人物이다.

넷째, 그의 道術의 行脚이 제3의 人物(강림도령)에 의해서 제지당한 것은 道術이 私的인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이용된 것에 대한 부정이지 도술적 행위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섯째, 爲民行脚의 범위를 넘어 支配倫理에 대한 도전적 자세로 출발한 田禹治의 現實的 抵抗이 사건이 전개되어 갈수록 약화된 것은 作家意識의 限界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封建王朝社會에서 體制 否定이나 挑戰은 있을 수 없고 일부 집단에 의해서 제기된 民亂도 모두 無爲로 끝난 사실을 작가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執權層의 人物들을 우롱하거나 몇몇 否定的인 人物의 應懲정도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